

특집 |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현재와 전망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안 | 신기영

투고일자: 2015. 12. 26 | 심사완료일자: 2016. 1. 9 | 게재확정일자: 2016. 2. 3

이 글은 재일코리안의 역사와 현재 및 집단적·개인적 경험을 이해하는 개념틀로서 디아스포라론의 유용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금까지 재일코리안을 이해하는 일반적인 시각은 일본 내 소수민족집단이나, 넓게는 초국가적 이주민의 시각이 있었다. 그러나 재일코리안은 정주국에 사회문화적으로 동화의 수준이 높으면서도 귀환할 수 있는 모국(현실적 또는 상상의)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다른 소수집단과 다르며, 귀화를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해온 점에서 초국가적 이주집단의 틀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반면 1990년대 이후 주목받아온 디아스포라론은 재일코리안을 정주국과 모국의 시공간적 경계를 넘어 형성되는 민족집단으로 특징짓고, 모국-디아스포라-정주국의 삼자구조 조건 속에 형성되는 이주와 정주의 역사 및 정체성에 대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그러한 디아스포라론에 입각할 때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왜, 어떠한 과정을 통해 디아스포라가 되었으며, 무엇이 지금까지 디아스포라적인 상황을 재생산하고 있는지를 고찰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특수성을 전통적인 디아스포라론의 삼자구조가 아닌, 동아시아의 전후 냉전의 역사에서 형성된 사자구조(적대적인 남북한-재일코리안-일본)의 구조에 두고, 재일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구체적인 삶과 정체성은 이러한 구조와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고 변화해왔음을 지적한다. 나아가 이러한 관계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동일한 역사를 공유하는 단일한 집단정체성의 가정을 배제하고, 재일코리안의 디아스포라화에 대한 복수(複數)의 역사를 듣고 쓸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디아스포라, 재일코리안, 동아시아, 마이너리티, 디아스포라화

1990년대 이후 한국에 소개된 재일조선인 지식인의 민족담론:

서경식의 '식민주의 저항' 담론에 관한 비판적 고찰 | 조관자

투고일자: 2015. 11. 18 | 심사완료일자: 2015. 12. 3 | 게재확정일자: 2016. 2. 3

서경식은 1990년대에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전체 민족의 네이션'을 주장했다. 그러나 2002년 무렵부터 그의 논점이 변화한다. 재일조선인을 '민족해방·주권국가의 주체'에서 '난민·반(半)난민'으로 재규정했다. 그의 입론은 팔레스타인의 현재적 문제를 재일조선인론에 적용하는 것이었다. 이 글은 시대상황에 따라 변화한 서경식의 저항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1990년대부터 일본은 '다문화공생' 정책을 추진했다. 재일코리안 사회에서도 '다국적, 다민족 시민사회'를 지향하는 공생론이 대두했다. 그러나 서경식은 '공생'을 '동화'로 비판한다. 재일조선인

은 일본의 '에스닉 마이너리티'가 아니며, '전체 민족의 네이션'을 건설할 주체라는 것이다. 그는 모든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식민지배로 인해 조국에서 추방당했다는 '식민지 기원 신화'를 만들고, 일본에서 식민주의가 계속되고 있다고 고발한다. 따라서 민족해방의 도달점으로서, 팔레스타인민족평의회(Palestine National Council)와 같은 '전체 민족'의 '주권기구'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코리안의 네이션'론은 유대인 디아스포라의 시오니즘과 닮아 있다.

서경식은 상징천황제를 유지하는 일본사회에 '시민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의 천황제 민족주의든, 코리안의 반일 민족주의든, 그들이 현실을 비판하고 극복하려는 태도는 닮았다. 그들은 시민적 공생에 입각하여 정치적 균열과 차이를 조율하기보다, '전체로서의 민족' 논리에 입각하여 정치적 의지를 통합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서경식의 비타협적 민족담론이 과연 일본과 한반도의 탈식민화, 그리고 아시아의 탈냉전적 평화를 실현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되묻고 있다.

주제어: 공생, 코리안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민족평의회, 다민족시민사회

재일코리안의 직업적 지위의 동태:

인구 센서스 데이터로 보는 1980~2010년의 변화 | 히구치 나오토

투고일자: 2015. 11. 17 | 심사완료일자: 2015. 12. 1 | 게재확정일자: 2016. 2. 3

재일코리안은 취직 차별 때문에 자영업을 할 수밖에 없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1980년대 이후에는 취직 차별이 완화되었다고도 한다. 그렇다면 재일코리안의 직업은 어떻게 변화해왔을까. 인구 센서스 위탁조사 집계를 사용하여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밝히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여기서 변화의 방향으로 (1) 에스닉 엔클레이브화, (2) 경제적 동화, (3) 분극화라는 세 가지 유형을 설정하고 각각의 타당성을 검증했다. (1) 자영업 이탈이 진행되는 한편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에스닉 비즈니스(ethnic businesses)가 유지되며 젊은층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에스닉 엔클레이브화는 지속되고 있다. (2) 1966년 이후 출생자의 대부분은 화이트칼라로 진출하여 일본인과의 차이가 적어지고 세대 교체에 의해 경제적 동화가 진행되고 있다. (3) 1946~65년생은 자영업 폐업과 실업자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실업자 비율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분극화가 발생하지는 않았다. 젊은층에서도 실업률에 격차가 있다는 문제는 남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1)과 (2)의 효과에 의해 재일코리안과 일본인의 직업상 격차는 해소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주제어: 재일코리안, 계층, 취직 차별

전문가 집단의 현황을 통해 본 재일동포사회: 변호사와 연구자를 중심으로 | 유혁수

투고일자: 2015. 11. 22 | 심사완료일자: 2015. 12. 6 | 게재확정일자: 2016. 2. 3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재일동포들은 높은 법적·제도적 차별 장벽과 극심한 사회적·경제적 차별 속에서 에스닉 공동체의 정보를 축적·배분하는 등 에스닉 경제의 이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신분 상승을 꾀해왔다. 히구치 교수는 "지난 30년간의 변화를 볼 때, 이민 연구 용어로 재일코리안을 자리매김한다면 분명 '모델 마이너리티'(model minority)가 될 것이다. 이 용어는 현재 주로 재미 아시아계 이민에 대해 쓰고 있는데, 2세의 높은 교육수준과 화이트칼라 진출을 특징으로 한다. 재일코리안의 경우 취직 차별 때문에 재미 아시아계 이민보다 한 세대 더 오랜 시간이 걸려 '모델 마이너리티'의 지위에 도달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히구치의 가설과 결론을 전문가 집단에 대입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 글에서는 전문직 진출이 민족적 소수자의 사회경제적 위상을 파악하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라는 전제하에, 변호사와 학자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현황을 정리하여 일본사회에서 재일동포사회의 현재를 조명하려 한다. 무엇이 김경득 변호사 등장의 파장을 그리도 크게 했으며, 변호사 김경득의 등장이 재일동포사회의 역사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현재 일본사회와 재일동포사회에서 재일 변호사들의 위상은 어떠한 것이며 거기에서 어떤 의의를 찾아야 하는가? 학자 집단은 재일변호사 집단과는 어떤 이동(異同)을 보이고 있는가? 또한 상기 히구치의 가설과 결론을 전문가 집단에 대입하면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러한 의문에 답하기 위해 필자가 일부 재일변호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및 인터뷰 결과, 그리고 주로 2008년에 〈한국인연구자포럼〉을 설립하여 운영해온 개인적인 체험과 고찰을 바탕으로 재일 전문가 집단의 현황과 위상을 다면적으로 조명한다. 그리고 ‘모델 마이너리티’ 주장은 기본적으로 타당하다 할 수 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화된 것으로 아직 수적으로 미흡하며 불확실한 부분이 많은 만큼 여전히 존재하는 법적·제도적 차별에 대항하는 재일동포사회의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주제어: 전문가 집단, 변호사, 연구자, 모델 마이너리티, 한국인연구자포럼

재일조선인의 정체성을 보는 시각: ‘더블’의 역사성에 관한 담론을 통해 | 리홍장

투고일자: 2015. 11. 11 | 심사완료일자: 2015. 12. 4 | 게재확정일자: 2016. 2. 3

이 글은 재일조선인과 일본인 사이에 태어난 이른바 ‘더블’의 정체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시각을 실제로 ‘더블’에 의한 담론실천을 통해서 고찰하는 것이다.

‘더블’은 일본과 한국에서 공유되고 있는 가해와 피해의 이원론 아래서 입장성을 둘러싼 갈등을 경험한다. 하지만 과거청산이나 차별문제가 아직도 재일조선인 생활의 ‘현실’을 구성하는 가운데, 그들의 ‘애매’한 입장을 표현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재일조선인의 역사성을 망각시켜버리는 담론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실제의 ‘더블’에 의한 이야기는 가해와 피해의 이원론을 극복하면서 또 역사에 언급하고자 하는 자세나, 타자와의 상호 행위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스테레오타이프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유의나 작별이 있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담론적 실천은 기존의 정체성 연구가 빠져온 민족본질주의와 사회구조주의 사이의 논쟁을 극복하기 위한 관점을 제시하는 동시에, 역사를 둘러싼 경험을 타자와 공유하는 공론장의 창출을 시사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재일조선인, 더블, 디아스포라, 정체성, 역사성

1990년대 이후 조선족의 도일과 정주화: 가족 분산과 재결합의 관점에서 | 권향숙

투고일자: 2015. 11. 23 | 심사완료일자: 2015. 12. 10 | 게재확정일자: 2016. 2. 3

이 글의 목적은 1990년대 이후 조선족의 도일과 정착 과정을 가족 분산과 재결합의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동아시아에 걸쳐 사는 조선족의 실태와 특징을 부각하는 데 있다. 1980년대 초반 국비 유학생을 필두로 시작된 조선족의 일본행은 1990년대 들어 급증했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사만세기를 넘는 역사를 새겨왔다. 일본 조선족사회의 중심 구성원인 유학생의 도일 배경에는 한국행을 선택한 부모세대의 경제적 지원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따라서 도일하는 조선족 유학생뿐만 아니라 부모세대의 역할을 염두에 두고 조선족의 도일과 오늘날 일본에서 형성되는 조선족사회를 이해하고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조선족의 일본행과 한국행은 한 가족 세대 간에 동시에 진행되는 유기적인 연관 속에서 포괄적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조선족의 가족 분산과 재결합은 바로 가족의 생존전략이자 생활실천을 의미하며 그 함의는 초국가적이며 지역적인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주제어: 가족의 분산과 재결합, 가족 생존전략, 이동, 도일, 정주화

연구논단

‘확대 지향’의 시 형식과 ‘축소 지향’의 시 형식:

시조와 하이쿠의 형식상 특성에 대한 하나의 비교 분석 | 장경렬

투고일자: 2015. 10. 2 | 심사완료일자: 2015. 11. 30 | 게재확정일자: 2016. 2. 3

일반적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시 형식인 시조에 상응하는 일본의 전통적인 시 형식으로 하이쿠가 지목된다. 아울러, 이 두 시 형식에 대한 비교 논의가 줄곧 시도되어왔다. 명백히 시조와 하이쿠는 여러 측면에서 의미 있는 비교가 가능한 시 형식이지만, 두 시 형식 사이에는 또렷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 시조가 기승전결이라는 구도 안에서 시적 이미지를 제시하는 시 형식이라면, 하이쿠는 두 개의 이미지를 중첩의 구조로 제시하는 시 형식이다. 이 글에서 논자는 이런 관점에 근거하여 시조와 하이쿠에 대한 역사적 및 내재적 특성에 대한 비교 분석 및 논의를 시도한다. 그 결과, 논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단시조에서 사설시조로, 사설시조에서 새로운 형태의 연시조로 발전해온 시조를 ‘확대 지향’의 시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단카에서 발원한 랜가에서 하이쿠로 발전해온 하이쿠는 ‘축소 지향’의 시 형식으로 규정할 수 있다. 아울러, ‘축소 지향’의 시 형식으로 정립되는 데 근거가 된 하이쿠의 본원적 특성을 ‘초시간성’에서 찾을 수 있다면, ‘확대 지향’의 시 형식으로 정립되는 데 근거가 된 시조의 본원적 특성은 ‘시간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결론과 관련하여 한 마디 첨언하자면, 시조와 하이쿠에 대한 논자의 분석은 결코 두 시 형식에 대한 가치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확대 지향성과 축소 지향성이라는 개념 및 시간성과 초시간성이라는 개념은 양자 가운데 어느 쪽이 우월한 시 형식이라는 판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비교 분석을 통해 양자의 특성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주제어: 시조, 하이쿠, 확대 지향, 축소 지향, 시간성, 초시간성

구조개혁과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변화 | 정진성

투고일자: 2015. 12. 4 | 심사완료일자: 2015. 12. 17 | 게재확정일자: 2016. 2. 3

일본 정부는 1990년대에 들어 기존의 일본형 경제시스템을 보다 시장지향적 시스템으로 변혁하고자 경제성장을 위한 주요정책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했다. 그 결과 2000년경까지 고용, 금융,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제도의 기초는 종래의 장기적 관계 중시에서 시장원리 중시로 크게 이동했다. 그러나 실제의 시스템 운영에서는 여전히 시장지향의 방향성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며 복수의 시스템이 결합, 혼재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로는 제도 간 보완성의 존재, 교육훈련시스템과 같은 제도 개혁의 곤란, 가계의 안정자산 선호와 같은 경제주체의 행동패턴에서 나타나는 고착성 등을 들 수 있다.

주제어: 구조개혁, 일본형 경제시스템